

총장-뉴스레터 - 68 (2023-11-10)

출 12 장 1 절-28 절 (유월절 제정)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13)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재난이 애굽 사람들을 덮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의 밤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이 밤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보존의 밤이면서 출애굽의 밤이기도 하다. 본문에서 출애굽 당시의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기념하여 해마다 명절의 형태로 지키는 것, 곧 이스라엘에서 아빕월 내지 니산월(봄 3/4 월) 14 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도 다루고 있다.

애굽 신의 무력함

죽음의 재앙이 애굽인들의 집에 임하여 그들을 쳤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피를 뿌려 놓으므로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집을 넘어갔다. '넘어가다'를 뜻하는 히브리 낱말은 절기 이름 유월절과 발음이 비슷하다. 유월절을 기념하여 매년 행사를 거행할 때마다 출발상황을 흥내내어 현재의 사검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이날 밤에는 애굽의 모든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애굽 땅을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의 명령을 거부한 애굽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과 짐승에 이르렀다. 그 심판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까지 미쳤다. 애굽의 각종 우상과 그들이 섬긴 신들도 하나님의 재앙을 멈출 수 없었다.

유월절과 결합된 무교절

하나님은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도록 명하셨다. 무교병(누룩 없는 빵)의 절기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되고 있다. 무교절은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칠일 동안 지키도록 명료히 규정하고 있다. 첫날 안식일에 누룩을 제하고 칠일 동안 내내 누룩이 없도록 지시한다.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본국에서 난 자든지로 정하여졌으며 그말을 옮긴 히브리 표현은 '나그네 이든 모국인이든' 으로 옮길 수 있다. 누룩을 먹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죄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것을 사모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실상 구원의 대열로부터 제거 당한 자임을 상징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으나 그 믿음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행위, 즉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 역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일 것이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스라엘이 애굽 압제에서 구원 받은 무교절처럼 최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으로 인도받은 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행사를 통해 구원의 감격 되 살리듯이 우리

역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드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재앙이 '넘어감'과 출애굽의 날은 성경의 하루 계산법에 따라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저녁에 시작된다.

유월절 만찬과 성만찬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교에서는 해마다 유월절 만찬을 베푸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대신에 성만찬을 거행한다. 바울은 이 둘 절기를 합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다'라고 하였다. 유대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에게도 유월절의 '넘어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망에서 보존하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시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만찬을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이 행위를 현재의 행위로 늘 새롭게 경험하게 한다. 우리에게도 성만찬을 통해 새 세대가 들어설 때마다 이에 대해 잘 알도록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다.

생각하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그들이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여 지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여야 할 필수적인 일임을 교훈하여 준다. 이는 어떤 장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거룩하게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교절의 규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한 마디로 거룩한 생활이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자신을 죄로부터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기업도,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